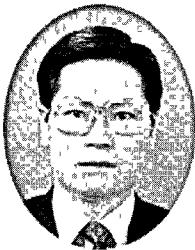


# 現代不治病, 癌을 극복하는 오행사(白靈砂)

柳相基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대한한약협회 강원도지부 원주시분회 유상기입니다.  
경험과 학문이 부족한 제가 경륜과 덕망이 높은 원장님들에게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부끄럽기 짹이 없습니다. 그러나 不恥下問, 또는 愚者千慮必有一得 어리석은 이의 수많은 생각 가운데 어쩌다 한번 잘할 수도 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철부지 어린손자에게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합니다.

저의 이 글은 비록 두서없지만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려 준비한 도표와 처방이니만큼 이 점을 참작하여 善者從之 不善者改之 善惡皆吾師—잘한 것은 따르고 잘못된 것은 고친다면 잘잘못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는 古語에 본을 삼는다면 萬病回春의 기쁨이 귀 사업에 충만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 1. 우리의 현실

우리는 흔히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민족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왔으며, 한약업계 역시 好時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약업계의 현실

## ■ 現代不治病, 癌을 극복하는 오행사(白靈砂)

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 전, 경제발전의 성장기였으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열악했을 때, 의료보험의 없을 때 평위산(平胃散), 귀비탕(歸脾湯),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만 가지고도 호황을 누릴 때, 주위의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아프면 먼저 병원을 찾습니다. 3,500원정도 들고 가면 진단 받고 주사 맞고 약을 처방해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때 다시 한의원을 찾습니다.

현재 한의원에는 물리치료기에 간호사까지 위생복을 입고 안내함으로써,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한 진단기 위에 누워만 있으면 혈관 속에 피가 흘러가는 것까지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에 의해 침을 맞고 전자자극기로 치료해줍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첨단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벼려두고 어느 환자가 초라한 한약방을 찾아와 약을 지으려 들겠습니까? 어쩌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고치지 못한 환자만이 한 명씩 찾아옵니다. 다른 곳을 모두 거친 환자만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넋두리하고 앉아있다 하여 현실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結者解之라 했듯이 그것은 우리가 타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 누구도 이를 동정하거나 대신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는 한 발 앞서기 위해 심층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히려 현실의 고충이 또 한 단계 도약의 계기로 전환시켜 轉禍爲福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치료하지 못할 질병을 치유하여 과연 “한약방이 원조야”라는 찬사를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수년 전부터 우리업계의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마음에서 연구에 연구끝에 오행사(五行砂) 제조법 사용법으로 치료에 임하였고, 이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백영사(白靈砂)는 경분(輕粉)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약입니다. 그러나 독약도

잘만 쓰면 만병통치약(萬病通治藥)이란 것은 한의약을 연구한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이 있기에 사용을 두려워합니다. 망설여집니다. 그러다가 병을 고치지 못할망정 차라리 안전위주로 하자하고 처방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수년 동안 오행사(五行砂) 제조법을 연마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동물실험까지 마치고 1년 전부터 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秘方을 혼자만이 소유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유의태, 허준 선생의 후학으로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고통 받는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이를 전하려는 뜻에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셔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의 생활에 많은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2. 암(癌)이란 무엇인가

암! 암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그 정체가 무엇인지 모른 채, 먼저 겁에 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암이란 무엇이고 무슨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암의 정의

인간은 60조의 세포에 의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목적과 끝이 분명합니다. 반면 암이란 목적도 없이 끝도 없이 자라나는 세포인 셈입니다. 옛날에는 바위 암(巖) 자를 썼고, 근래에 와서는 암 암(癌) 자를 쓰고 있습니다.

## (2) 종양과 암의 차이점

서양의학에서는 모든 종괴를 총칭하며 또는 종양이라고 칭합니다. 모든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악성이 바로 암인 셈입니다. 양성은 위치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으나 생명에 위험은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에 생긴 굳고 율퉁불퉁하며 잘 끊지도 아프지도 않고 이동성이 없는 종물(腫物)이라 하며 옹저(癰疽) 또는 무명종독(無名腫毒), 즉 이름 없는 종독이라 하기도 합니다.

## (3) 암이 생기는 이유와 변화

일반적으로 이 질환은 밖으로부터 한열(寒熱)과 습담(濕痰), 사독(邪毒) 및 기(氣)가 막혀서[鬱滯] 생긴 어혈(瘀血)이 쌓이고 몰려서 덩어리가 되며 장부(臟腑), 경락(經絡)의 기능이 고르지 못하고 음양가열이 손상되어 정기(精氣)가 허(虛)해짐으로 생깁니다.

석실비록 4권에 의하면, 옹저(癰疽)는 생긴 부위와 특징에 따라 등에 생기기도 하고 혹은 뇌(두정)에 생기며 혹은 흉복(폐, 위, 간) 혹은 수족(팔, 다리, 어깨, 허벅지) 혹은 요제(腰臍) 신장, 대장, 소장, 척추 혹은 음낭, 항문 주위에 생깁니다. {雷公眞君曰 凡人癰疽 發於背 或生於頭頂 或生於胸腹 或生於手足 臂腿腰臍之間 前陰糞門之際}

그러나 간혹 설암(舌癌), 유방암(乳房癌), 석저(石疽)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렵지도 아프지도 끊지도 않으나 점차 커지며 외부에서는 터져도 아물지 않고 냄새가 나며 내부에서는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전이가 시작되면 말기암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아울러 침윤성이란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이는 다른 정상조직과 주위의 작고 큰 혈관 조직에 파고들어 성장하는 것이어서 집도하는 의사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4) 치료방법

한의학에서는 무론양독음독(無論陽毒陰毒 : 양성과 음성을 막론)하고 음식 섭취를 잘하고 소대변을 잘 보면 고칠 수 있다 말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30년 동안 견문을 넓히고 연구한 끝에 도표와 같이 오행사(五行砂) 사향단을 완성하여 절망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을 위해 꾸준한 노력으로 아홉 번 법제하여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사경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소망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 3. 버거씨 병이란

동맥질환(動脈疾患) 사지말초신경(四肢末梢神經)에 혈행(血行) 장애(障礙)가 원인이 되며 1908년 버거란 사람에 의해 병명이 탄생되었습니다.

#### (1) 발생원인과 남녀 비례

이 질환은 산업화 사회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거공간에 음이온이 감소하여 폐쇄성 혈관(血管) 질환, 즉 동맥순환 정체가 말초신경에 순환 장애를 일으켜 미세 혈관 조직을 파괴하여 허혈성 괴사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주로 여성보다는 20~40대 남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분별한 음식문화, 무절제한 성생활, 검증되지 않은 수혈 등으로 일어난다고 추측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알 수 없으며, 현재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 (2) 병의 증상

손발 끝 부분이나 조갑 부위가 창백해지면서 간혹 딱딱하고 검붉은 혹이 생겨 터지기도 하는데 잘 아물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일상생활에 장거리 보행이

#### ■ 現代不治病, 癌을 극복하는 오행사(白靈砂)

어려워집니다. 통증이 주기적으로 왕래하면서 삶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심할 경우 해당 부위가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일어나며 항상 손발 끝이 차갑고 무감각할 때도 있습니다.

#### (3) 주의할 점

인간이 살면서 먹는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문화가 발달하면서 입맛도 개성에 따라 산(酸), 함(鹹), 신(辛), 고(苦), 감(甘) 다섯 가지 맛에 맞추어 즐기는데, 대부분 개인의 식성에 따라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섭취한 음식물에 의해 생명의 원천이 되는 혈액이 생산되어 심장을 통하여 동맥 정맥 말초신경 모세혈관까지 순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처럼 흘러야 될 피가 죽처럼 되었을 때 과연 모세혈관(머리털 같은 혈관)까지 잘 왕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혈중(血中) 농도가 죽처럼 되어지는 주범은 ① 담배 ② 당분 ③ 염분 ④ 지방입니다. 이상 네 가지 성분을 과다하게 섭취하였을 때 생명력이 되는 선명하고 투명한 붉은 피가 죽처럼 탁하고 검붉은 사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혈관 내 피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혈관 수축을 자극해 말초조직에 산소 부족현상이 일어나 말초신경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 (4) 합병증

혈중농도가 탁해지면 만병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별 물의는 아닙니다. 더욱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간경화 등의 성인병을 우려해야 합니다. 그중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부족으로 당분을 분해하지 못하여 혈액 속에 당분이 옛처럼 끈적끈적해져서 물처럼 흘러야 할 혈액이 혈관에 정체되어 시작되는 병이지만 벼거씨와는 증세가 비슷하다고 사료됩니다.

### (5) 치료방법

한의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저로서는 서양의학은 접어두고 한의학에 근거하여 먼저 음식을 조절하면서 채식을 유도하여 혈중농도를 맑게 하고 탕약으로는 탁리소독음(托裏消毒飲), 십육미유기음(十六味流氣飲), 소풍활혈탕(疎風活血湯), 개기소담탕(開氣消痰湯), 연교파독산(連翹敗毒散) 등을 체질에 맞게 사용하고 동시에 금액단으로 한열을 몰아내면서 모든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하는 오행사(사향단)을 사용하여 90-95% 효과를 얻어왔습니다.

• 處方名 : 罂香丹

• 效 能 : 各種 癌 連珠瘡(瘰癧) 甲狀腺腫 淋疾 梅毒 惡瘍 腫毒 癰疽  
前立腺炎 벼거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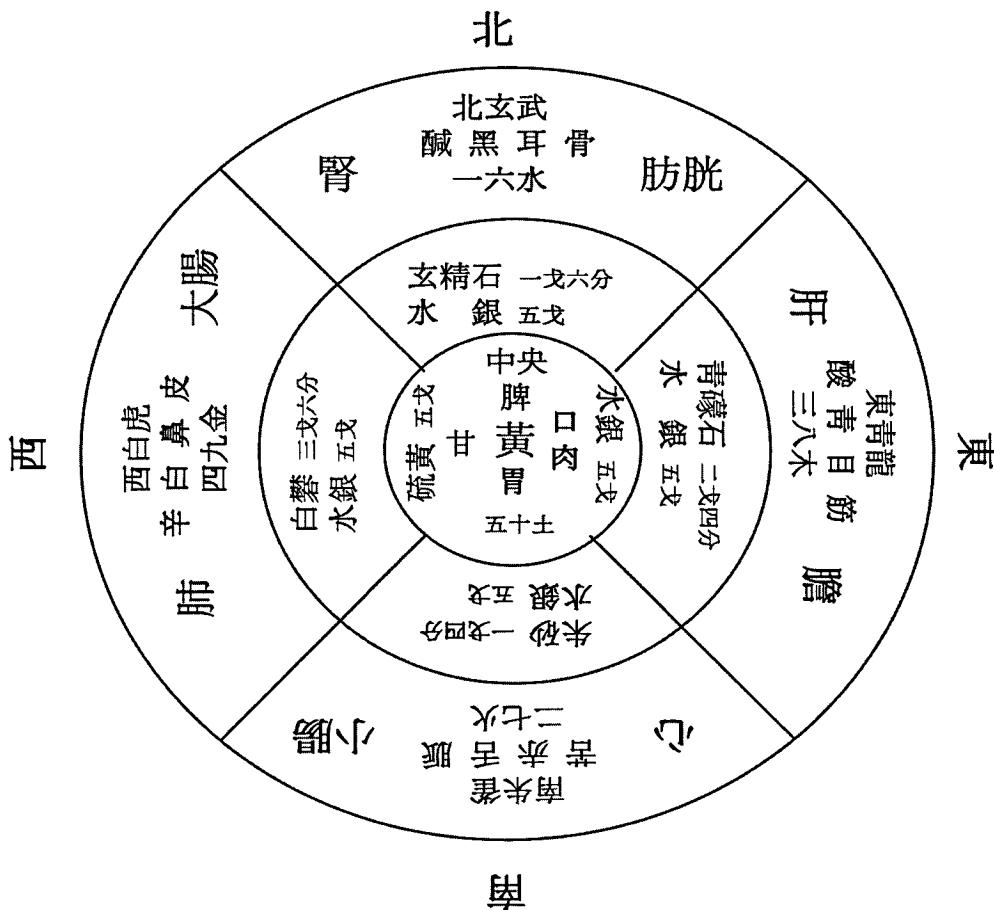
• 處 方 : 五行砂 五戈, 沒藥 一戈半, 乳香, 枯白礬, 石雄黃 水飛, 血竭,  
龍腦, 黃丹, 胡桐淚, 朱砂 水飛, 班貓 去頭羽足糯米炒黃, 眞珠粉  
一戈半, 牛黃, 罂香 一戈

• 製 法 : 上記 藥 細末 飯 作丸 穀米大

• 用 法 : 一日三回 每回 五丸式 食後 溫水 服用

• 副作用 : 豬肉 食之 解毒也

## 五行砂(白靈砂)製造法



註解：鼎底細鹽 布於如掌厚 而再布鹽上綠礬粉 上記圖表藥物配置 白色食器  
蓋冠狀也 如餌邊塞空 塗於赤石脂水混 餘空間 鹽泥固封 文火而武火  
交代十二時間燒成 翌日開封 正坐視則 五方存置水銀而變形白色  
器天附着 毛筆掃集 而成輕粉也 如此反復五回 則成五行砂  
無毒安心施藥 則連五回反復 成白靈砂 無害無毒也 自五回而  
上中下 三等分故稱於天地人也 天有大毒 人有小毒 地有無毒  
則 白靈砂 形狀而 地面如綿花蘇生 而恰似雪片花而真品也  
一回至三回則輕粉 五回則五行砂 五回則白靈砂 始初定立也

二千五年 五月 二十七日

## 5. 사용법(事用法)

### (1) ① 關節炎(濕姓)

- ② (乾性) 荊防敗毒散加牛膝木果連交玄參 五行砂三分
- ③ (류마티스) 疽風活血湯 托裏消毒飲加五行砂
- ④ (痛風) 암모니아유독가스원인 : 四苓散 疽風活血湯合方五行砂三分
- 處方 : 濕姓關節炎 - 金銀花, 忍冬藤 八兩, 當歸 尾, 牛膝, 桃仁 五兩, 紅花, 皂角刺, 穿山甲 三兩, 五行砂 六戈  
難治性者 加蒲公英 六兩, 鷄肉一頭, 右藥爲湯, 一日三回 十五日分服

### (2) 胃 大小腸 直腸 潰瘍 癌

- 冷 嘔吐 加 白荳蔻 热 加 黃連 黃芩 檀子 五行砂必加鷄一頭
- 處方 : 當歸, 川芎, 白芍藥, 乾地黃 二戈, 紫丹香, 蓮子肉 一戈半, 龍眼肉, 工砂仁, 香附子, 山棗仁, 陳皮, 烏藥, 白朮 一戈, 木香, 甘草 七分, 五行砂 三分  
癌者加 瓦松, 赤小豆, 蒲公英, 榆根皮 一戈半, 敗醬 一戈

### (3) 膀胱 癌(蟠葱散元方)

- 處方 : 蒼朮, 甘草 一戈半, 三陵, 蓬朮, 白茯苓, 青皮 一戈, 工砂仁, 丁香皮, 檳榔 八分, 玄胡索, 肉桂, 乾僵 五分, 金銀花, 蒲公英 二戈, 五行砂 三分, 葱白一莖 鷄一頭

### (4) 乳房癌 甲狀腺 肿(十六味流氣飲) 連珠滄 麻香丹 同服

- 處方 : 蘇葉 二戈, 人蔘, 黃芪, 當歸, 川芎 一戈半, 厚朴, 肉桂, 白朮, 防風, 烏藥, 檳榔, 白芍藥, 枳角 一戈, 木香, 甘草, 桔梗 七分, 射干, 鬼箭羽, 夏枯草 一戈半, 五行砂 三分, 鷄一頭

■ 現代不治病, 癌을 극복하는 오행사(白靈砂)

- 乳房癌 : 瓦松, 赤小豆, 蒲公英, 榆根皮 一戈半, 貝母 一戈

(5) 前立腺炎 肥大症(禹功散) (麝香丹) 單方 完治

- 處方 : 陳皮, 半夏 薑制, 赤茯苓, 猪苓, 澤瀉, 白朮 炒, 木通, 黃芩, 桔子 炒  
一戈三分, 升麻 七分, 甘草 五分, 五行砂 三分, 肥大症 金銀花,  
蒲公英 二戈, 赤小豆 一戈半, 鷄一頭

(6) 肝硬化(龍膽瀉肝湯) 黃疸 菌陳

- 處方 : 草龍膽, 柴胡, 澤瀉 一戈半, 木通, 車前子, 赤茯苓, 生地黃, 當歸,  
桔子, 黃芩, 甘草 一戈, 五行砂 三分, 鷄一頭, 金銀花 二戈, 三陵,  
蓬朮 一戈  
腹水症 補中治濕湯 四苓散 合方 化膿症 金銀花 蒲公英 赤小豆 射干  
脂肪肝 者, 三陵, 蓬朮, 木賊  
肝硬化, 肝炎, 肝癌, 肝化膿, 脂肪肝 모두에게 靈天水(木醋液) 必加  
服用함.

木醋液은 숙성 六ヶ月되면 上中下로 구별되는데 시중 유통 목초액은 上中下  
를 구별하지 않고 혼합정제하여 유통하므로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 上충부는 경질유와 물(농약으로 사용)
  - 中충부는 목초액(첨가물 식품과 약품으로 사용)
  - 下충부는 타르와 이물질(사육장 탈취제로 사용)
- 버거씨병은 원고에서 참고하셔요.

(7) 肺炎 胸膜炎 咳血 百合 痰盛 貝母 杏仁

- 處方 : 金銀花 三戈, 蒲公英 二戈, 當歸, 黃芪 一戈半, 天花粉, 白芷, 穿山甲  
醋炒, 皂角刺 一戈, 白芥子, 紅花 五分, 蠕蚣 十首至三十首, 五行砂

二分半, 鷄一頭, 硅肺症 白芨 二戈, 百合, 貝母 一戈半

(8) 肺痿(肺病)症 初期二濟 二期四濟 三期六濟 四期九濟 完治

氣虛 哮吼 咳嗽 喘息 清上補下湯 本方 加 鬼箭羽 白果

射干 丁歷子炒

- 處方 : 岐伯肺痿湯 : 金銀花, 麥門冬, 生地黃 二戈, 百合, 紫菀, 甘草, 款冬花, 貝母, 白薇 一戈, 生薑 三片, 五行砂 二分半, 蒼仁苡, 糯米各等分末 作粥同服

(9) 腎臟炎

- 處方 : 三和湯, 白朮, 陳皮, 厚朴 一戈半, 蘇葉, 檳榔 一戈, 木通, 大服皮, 白茯苓, 枳角, 海金砂, 甘草 七分, 猪苓, 澤瀉, 青皮, 牛膝, 香附子, 萊菔子 一戈, 五行砂 二分半, 鷄一頭

(10) 性病 淋疾 梅毒 五淋 (前立腺炎) 罂香丹 單方 完治

- 處方 : 海金砂, 赤芍藥, 山梔子, 當歸, 赤茯苓, 條芩, 甘草, 草龍膽, 牛膝, 虎杖根, 草解 等分, 五行砂 三分, 鷄一頭

(11) 精力不足 性交不能

- 處方 : 升麻 六戈, 當歸 酒洗, 牡丹皮 三戈, 巴戟, 覆盆子, 兔絲子 一戈半, 甘草 五分, 服用五日後 發起處方也

(12) 糖尿病 甘草 代身 포도씨나 검은콩에서 생산되는(올리고당) 1,500ml 加 尤好

- 處方 : 猪甘蔴(生) 十斤, 天花粉, 白干蠶 一斤, 桂皮 十兩, 甘草 十兩, 鼠目太 一升, 牛膽汁 七介 一介月分服 六介月完治

- 現代不治病, 癌을 극복하는 오행사(白靈砂)

(13) 高血壓 甘草 代身 포도씨나 검은콩에서 생산되는(울리고당)1,500ml加  
尤好

- 處方 : 洋葱(生) 三十斤, 白果葉, 生薑 一斤, 陳皮 半斤, 甘草 兩四, 木醋液  
100m 一ヶ月分服 六ヶ月完治

(14) 痘症 (氣痘寒痘) 膀胱 小腸 腎氣 作痛 寒濕 囊心 水腫  
煖肝煎 蟬蠅散 合方 加 胡蘆巴 荔枝核 蔥白一莖

- 處方 : 枸杞子 三戈, 當歸, 白茯苓, 烏藥, 小茴香, 胡蘆巴, 荔枝核 各二戈,  
蒼朮, 甘草, 三陵, 蓬朮, 青皮, 工砂仁, 丁香皮, 檳榔, 玄胡索, 桂皮,  
乾姜, 吳茱萸, 唐木香 各一戈 三濟完治

## 胃痙攣 特效方

- 處方 : 일반 燒酒(1.8 ℥ 1병)에 黃雪糖 1kg 정도를 넣고 100℃ 温度에서  
10여분 끓여서 식힌 후 1컵(1회용 종이컵)씩을 1일 3회 복용하면  
약 5~10분 내로 痛症이 멎추어진다. 痛症이 없어도 4~5일 정도 더  
복용하면 재발하지 않는다.

※ 本 秘方은 燒酒와 雪糖을 섞어 끓이면 알콜도 술 냄새도 나지 않아 男女  
老少 누구나 복용에 부담이 없다.

(유한한약방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815-2 ☎ 033)762-7575)